



Global Data Centre Outlook 2026–50

AI 인프라 대전환 시대, 31조 6,000억 달러의
투자자금은 어디로 향하는가?



Contents

1. 주요 시사점	02
2. 소개	03
3. AI의 영향	05
4. 복잡해진 시장	08
5. 자본투자는 어디로 향하는가?	11
6. 시나리오 분석	18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시사점	26
8. 방법론	29
9. 참고사항	31

1. 주요 시사점

-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는 2050년까지 31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AI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경우 약 50조 달러 규모까지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인프라 지출 사이클과 달리 데이터센터 투자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서버, GPU 및 기타 ICT 장비가 4~6년 주기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데이터센터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견조하지만, 전력 공급의 가용성, 데이터 주권 관련 요구사항 및 반도체 공급망의 흐름 등의 요건들은 어느 지역이 이러한 투자수요를 유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관점에서의 시사점

AI 경쟁의 핵심은 GPU가 아니라 전력입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시장은 수요 부족이 아닌 전력 병목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가치는 부지보다 전력 확보 가능성과 가압 시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승부처는 데이터센터보다 AI 인프라 공급망입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의 수혜는 건설보다 GPU, HBM, 전력기기, 냉각설비 등 인프라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데이터센터 자체보다 AI 인프라 생태계 전반에 존재합니다.

AI 데이터센터 시장은 세 개의 시장으로 재편됩니다.

AI 학습은 전력이 있는 곳으로, AI 추론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산업 AI는 제조 현장 가까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과제는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실행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데이터 수요, 연결성, 반도체 생태계, AI 공급망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확보한 경쟁력을 실제 전력 용량과 AI 인프라로 실행력입니다.

2. 소개

철도, 전력망, 인터넷. 이들은 모두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며 각 시대를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초기 단계에 자본투자(Capex)가 집중된 후 네트워크가 성숙하면서 투자규모가 점차 감소했던 과거의 인프라 투자 사이클과 달리,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4~6년 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흐름이 종료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PwC는 Oxford Economics에 의뢰하여 46개 국가·지역 및 5개 권역에 걸친 데이터센터 자본투자(Capex)를 분석했으며, 해당 범위는 전 세계의 경제적인 생산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 시나리오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AI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연산 처리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1조 6,000억 달러의 자본투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AI 도입이 가속화될 경우 약 50조 달러에 근접하는 규모까지 투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규모는 영국과 미국에서 철도 건설에 투입된 투자액이나 인터넷 인프라 구축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규모 외에도, 이번 자본투자(Capex) 사이클이 차별화되는 점은 연간 지출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연간 지출은 2026년 약 8,0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1,000억 달러, 2050년에는 1조 8,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출액 대부분일 것인 데이터센터 건물 자체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출액은 그 내부를 채우는 설비, 즉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중앙처리장치(CPU), 그리고 무엇보다 AI 연산 처리능력을 제공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주로 투자되고, 이러한 장비들은 수년 내 경제적 연수가 도래하여 교체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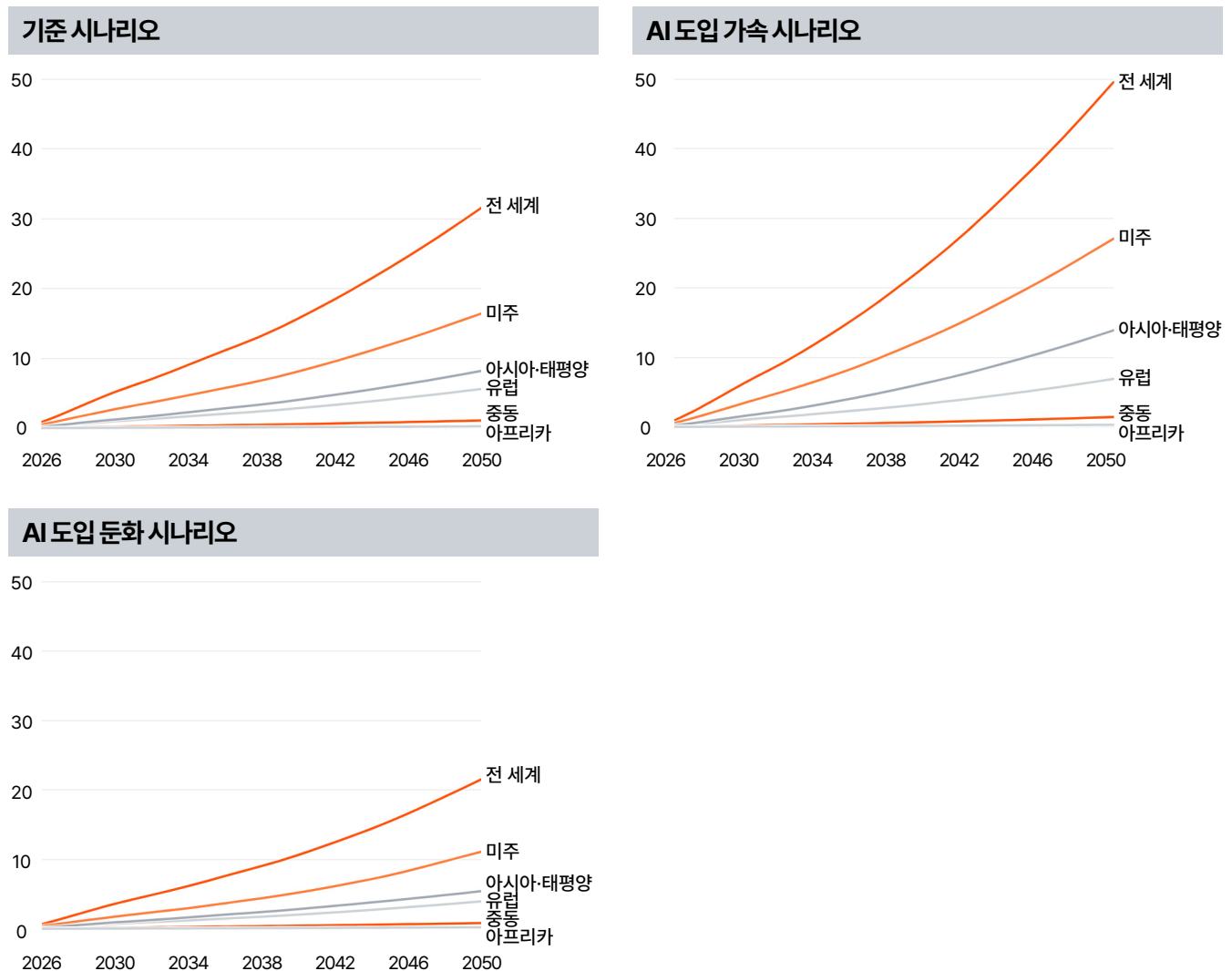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추정치는 약 22조 달러에서 50조 달러에 이르며, 31조 6,000억 달러는 기준 시나리오의 결과입니다. 이때 결과값은 대체로 AI 도입의 속도와 규모에 크게 좌우되지만 우리가 구성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방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추정 기간 동안 CAPEX는 유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첨단 반도체 공급이 제한되거나, 데이터 처리 수요가 자국 내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더라도 유지됩니다. (두 시나리오는 뒤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투자의 지역적 배분입니다.

사용자층이 넓어지면서 증가하는 연산 처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자금 자체는 충분히 조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한 전력의 확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AI 수요는 수십 년 전에 건설된 전력망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이 자본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지, 무엇이 이 자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형성되는 투자의 지형도가 투자자, 운영사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자본투자(Capex)는 시나리오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최대 31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데이터센터 누적 자본 투자(Capex), 2026~2050년 (단위: 조 미달러(USD))



참고: 모든 지출금액은 2025년 기준 미 달러(USD)로 표시되었습니다.

출처: PwC 『Global Data Centre Outlook 2026-50』, Oxford Economics의 예측 모형

3. AI의 영향

구조적으로 다른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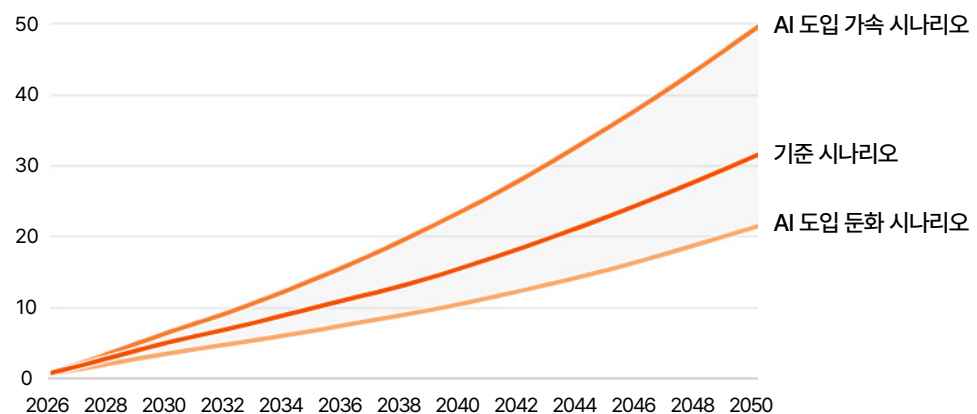
자본투자(Capex) 전망은 원뿔형(Cone) 구조로 전개됩니다. 단기 수요는 클라우드 전환,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의 확장, 그리고 AI 네이티브 산업의 첫 번째 물결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망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뿔의 폭이 넓어지듯 전망의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AI 도입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 간의 격차는 대략 미국 GDP 규모에 준하는 수준이 됩니다.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 2050년까지 자본투자(Capex)는 약 50조 달러까지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면 AI 도입이 둔화될 경우 이번 투자 사이클에서 약 10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감소하여, 전 세계 곳곳에 건설된 경기장 규모의 데이터센터에서 상당한 유휴 용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도입이 가속화될 경우의 자본적 지출(Capex) 증가 폭은, AI 도입이 둔화될 경우의 감소 폭을 상회합니다.

출처: PwC 『Global Data Centre Outlook 2026-50』, Oxford Economics의 예측 모형

글로벌 데이터센터 누적 자본 투자(Capex), 2026~2050년 (단위: 조 미달러(USD))



참고: 모든 지출금액은 2025년 기준 미 달러(USD)로 표시되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범위 전반에 걸쳐 연간 자본투자(Capex)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센터의 자본 구조(Capital stack)에 있습니다. 본체(Shell)와 핵심 부지 인프라(Core site infrastructure), 예를 들어 전력망 연계 설비와 광케이블망 등은 비교적 긴 내용연수를 갖지만, 그 내부에 설치되는 ICT 장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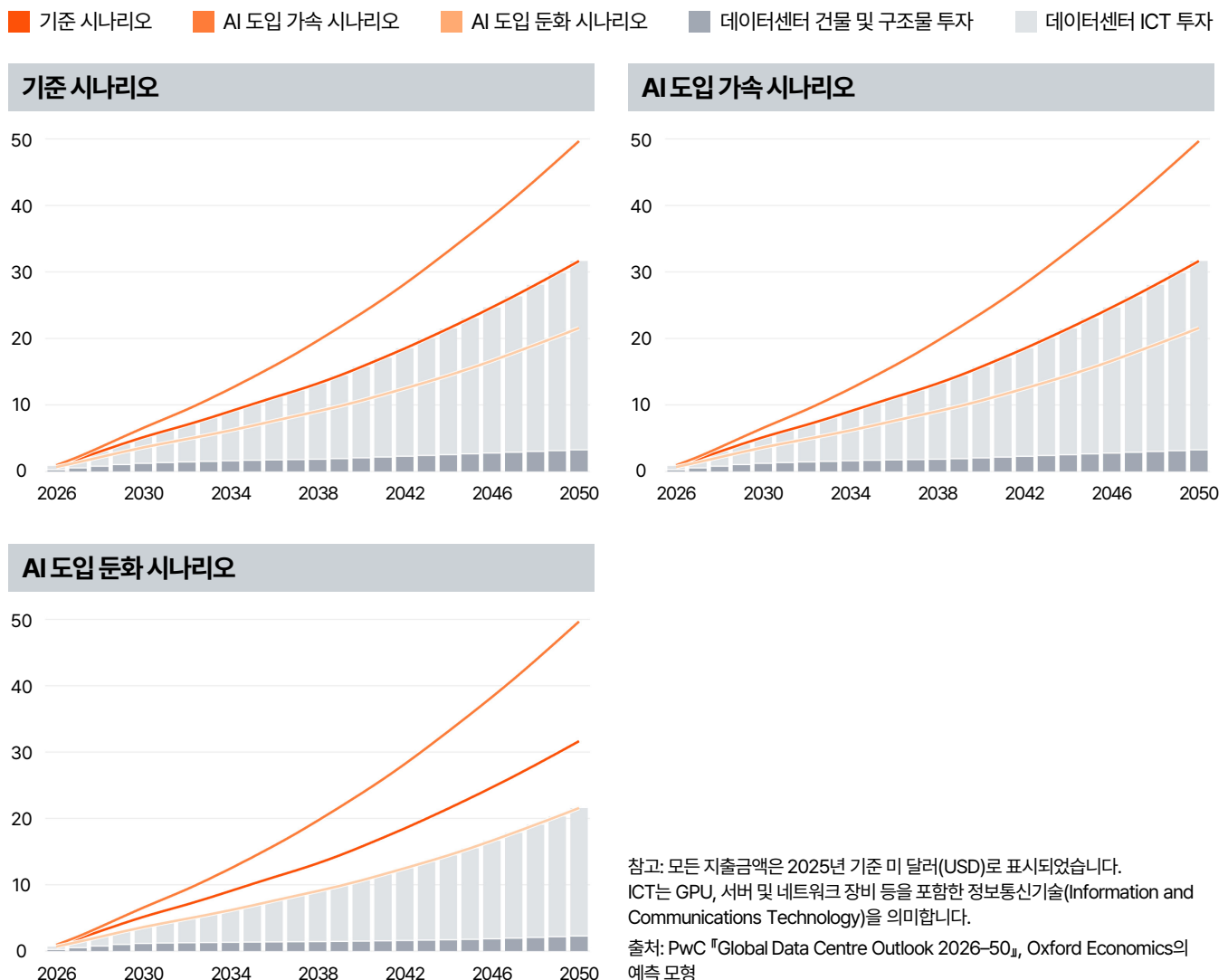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건설 관련된 자본투자(Capex) 1달러가 사실상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약 12달러의 자본투자(Capex)를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GPU 및 설치·교체·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기타 하드웨어가 포함됩니다.

시장 전체 기준으로 ICT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전체 자본투자(Capex)의 70%에서 2050년에는 93%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AI는 이러한 장비 교체 사이클을 더욱 자본 집약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는 주로 중앙처리장치(CPU)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반면 AI워크로드는 비용과 전력 소모가 더 크고 기술 혁신 주기가 더 빠른 GPU와 가속기에 의존합니다. GPU와 서버의 교체 주기는 일반적으로 4~6년으로, 하나의 데이터센터는 20년의 자산 내용연수 동안 3~5차례의 ICT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장비 지출은 건설비를 크게 상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됩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누적 자본 투자(Capex), 2026~2050년 (단위: 조 미달러(USD))



또한 고밀도 랙(Rack) 구성으로 인해 전력 및 냉각 설비의 증설이 필요해질 수 있으나 자본투자 (Capex)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항목은 결국 연산 장비 자체입니다. 철도, 전력망, 인터넷 등 이전 세대의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서는 초기 건설 단계에서 자본투자(Capex)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후 네트워크가 성숙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현재의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이러한 패턴을 뒤집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사실상 '반도체 교체 구독 모델'에 건물을 덧씌운 형태에 가깝습니다. 한 번 구축한 이후에는 4~6년마다 내부 장비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에 필요한 자본의 규모뿐 만 아니라, 어떤 투자자가 자금을 공급하고 누가 투자 부담을 감당할 것인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한국관점

한국의 기회는 데이터센터 자체보다 AI 인프라 공급망에 있습니다.

글로벌 보고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ICT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6년 70%에서 2050년 9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향후 데이터센터 산업의 가치가 건물과 부지보다 GPU, 메모리, 전력설비, 냉각장비 등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인프라 장비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처럼 대규모 데이터센터 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아니지만, AI 인프라 공급망에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HBM과 메모리를 비롯해 변압기, 배전설비, UPS, ESS, 액체냉각, 에너지관리 시스템, 보안 솔루션 등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설비와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데이터센터 투자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더라도 공급망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데이터센터가 미국에 지어지든 중동에 지어지든 GPU와 메모리, 전력설비와 냉각장비는 반복적으로 설치·교체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규모보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HBM은 한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AI 인프라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AI 학습과 추론 규모가 확대될수록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어느 국가에 건설되더라도 HBM 수요는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대표적인 수혜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 ①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보다 AI 인프라 공급망 경쟁력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HBM·메모리뿐 아니라 전력기기, 냉각, ESS, DCIM, 보안 등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 ③ 한국의 AI 전략은 '데이터센터 강국'보다 'AI 인프라 공급망 허브' 전략에 가까워야 합니다.
- ④ 국내 AIDC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병행해야 한국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4. 복잡해진 시장

하나의 시장에서 여러 시장으로

클라우드 시대는 사실상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단일 고객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네오클라우드(Neocloud), AI 모델 개발사, 추론 플랫폼(Inference platform), 일반 기업, 정부 등 최소 다섯 개의 새로운 고객군이 추가됩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하기도 합니다. 각 고객군은 서로 다른 수요와 리스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워크로드는 상이한 기술적·지리적 요구사항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리는 지점이 향후 투자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AI 수요는 고객군, 워크로드 및 입지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데이터센터 수요는 고객군의 요구사항이 워크로드 요건 및 지역별 인프라 제약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워크로드 유형	워크로드 사례	주요 수요자	수요의 지리적 특성	수요 유치의 핵심 요인
전통적 클라우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협업·생산성 도구, 디지털 서비스	하이퍼스케일러, 일반 기업, 코로케이션 사업자	인구와 GDP, 기업 밀집도 및 기존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따라 형성	회선 연결, 안정성, 비용 효율, 기업 수요와의 인접성
입지 민감형 AI/추론	데이터주권 워크로드, 개인정보·규제 대상 데이터, 고객 응대, 금융, 헬스케어, 공공 서비스, 저지연 AI	하이퍼스케일러, 일반 기업, 정부, 규제 산업 내 기업·기관, 추론 플랫폼	국가·지역 중심. 이용자, 데이터 및 규제 요건 그리고 데이터 주권 요건의 영향을 받음	지연시간, 데이터 접근성, 보안, 거버넌스, 신뢰 국가 내 호스팅
이동형 AI/학습	모델 학습, 미세조정, 공개 데이터 기반 워크로드, 대규모 GPU 클러스터	AI 전문 클라우드 사업자, AI모델 개발사, 하이퍼스케일러	이동성이 높으며, 공급 여건이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이전 가능	GPU 물량 확보용이성, 확장 가능한 대규모 부지, 전력공급, 총소유비용 (TCO)*, 연결성, 기술 인력

* TCO : Total Cost of Ownership

출처: PwC분석

고객군별로 상이한 수요 및 리스크 구조

지난 10여 년간 데이터센터 수요는 주로 클라우드의 성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I로 인해 새로운 고객군이 등장하면서 시장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각 고객군은 서로 다른 수요 특성과 리스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지만, 구축 및 확장 속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네오클라우드 사업자와 AI 모델 개발사는 집약적인 GPU 수요를 창출하지만, 반도체 확보와 AI 수익화 측면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지만 더욱 높은 수준의 통합 및 거버넌스 요건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 확충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요처지만, 투자의 속도는 조달 절차와 정책에 좌우됩니다. 이들 모두는 동일한 물리적 병목에 민감합니다. 즉, 충분하고 안정적인 전력이 적시에 필요한 지역까지 공급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들은 공통된 사업적 과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서는 네트워크가 구축된 이후 투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이번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서는 자본투자(Capex)가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이는 AI가 창출하는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AI 도입이 정체되거나 AI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인프라 구축 후반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여기서 언급된 각 고객군은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별로 상이한 지역적 요구사항

고객군만큼이나 워크로드의 특성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클라우드 수요는 일반적으로 인구, GDP, 기업 밀집도 및 기존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분포를 따라 형성됩니다. 반면 AI 추론(AI inference)은 입지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습니다. AI 모델이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지연시간(Latency), 데이터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데이터 주권 요건 등으로 인해 데이터 처리 역량이 지역 데이터센터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AI 학습(AI training)은 이러한 스펙트럼의 정반대편에 위치합니다. AI 학습은 대규모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최종 이용자와의 물리적 근접성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성, 대규모 부지, 기술 인력, 성숙한 AI 생태계, 그리고 신속한 구축 역량을 갖춘 시장이라면 어느 지역이든 입지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PwC는 현재 전체 워크로드의 약 30%가 현지 요구사항을 수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센터 수요의 지역별 분포는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데이터센터 시장이 아니라 세 개의 시장입니다.

글로벌 보고서는 AI 추론(Inference)과 AI 학습(Training)이 서로 다른 입지 조건을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AI 데이터센터 시장은 단일 시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 개의 시장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수도권은 AI 추론 중심 시장입니다. 금융, 전자상거래, 게임, 공공서비스와 같은 지연시간에 민감한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 이용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대규모 학습센터보다 AI 추론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비수도권은 AI 학습 중심 시장입니다.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AI 학습은 이용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전력, 대규모 부지, 냉각 효율이 더 중요합니다. 전력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비수도권이 대규모 AI 학습센터의 핵심 입지로 부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향후 수도권은 기업용 AI와 공공 AI 수요를 처리하는 추론 거점으로, 동해안과 남부권은 대규모 AI 학습 클러스터로, 산업벨트 지역은 제조 AI를 지원하는 엣지 인프라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제조업 거점은 산업 AI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AI가 생산설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장 인근의 Edge AI 인프라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트윈, 스마트팩토리, 자율제어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의 과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입지 전략도 '어디에 더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어떤 연산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사점

- ① AI 학습은 전력이 있는 곳으로, AI 추론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②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③ 제조업 중심 지역은 산업 AI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새로운 데이터센터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자본투자는 어디로 향하는가?

불균등한 자본투자의 분포

지역 간 격차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수요를 실제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 지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클라우드 시대의 시장을 형성했던 요인들과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본투자(Capex)의 향방은 다섯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그 중에서도 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저탄소 전력을 대규모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송전망 용량, 변전소 확보 가능 여부, 그리고 수년에 걸친 변압기 조달기간은 점차 주요 병목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어떤 프로젝트가 착공될 수 있는지와 그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영사들은 점차 데이터센터 부지에 자체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시장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한국관점

AI 시대의 새로운 토지는 전력입니다.

과거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의 핵심은 통신망과 고객 접근성이었습니다. 기업과 이용자 가까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땅을 확보했느냐보다 언제, 얼마나 많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집중되어 있지만 계통 여유와 변전설비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전력 여건이 양호하지만 수요와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 개발 과정에서 부지 확보나 투자금 조달보다 전력계통 접속 가능 여부, 변전소 연계 계획, 전력 공급 시점이 더욱 중요한 검토 항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신청 규모는 수만 MW에 이르지만, 실제 공급 가능 단계에 도달한 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경쟁력은 더 이상 건물 규모나 투자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전력을 확보하고 가동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과거에는 좋은 부지를 확보한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졌다면, 이제는 전력을 먼저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 ① 데이터센터 시대의 핵심 자산은 토지에서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② 사업가치를 결정하는 기준도 부지 규모보다 전력계통 접속 가능성과 가압 시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③ 한국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은 전력 확보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31조 6,0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자본투자의
향방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

출처: PwC 및 Oxford Economics
분석

요인	의미	강점을 보유한 지역
전력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고 전력망 장애 위험이 낮은 저렴·안정·저탄소 전력	중동, 북유럽
지연시간 및 연결성	이용자와의 저지연 연결 및 클라우드·광통신 생태계와의 긴밀한 연계	미국, 홍콩, 독일,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인도
보안 및 신뢰 기반 호스팅 환경	민감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역량, 규제 체계에 대한 신뢰성 및 데이터 보호 체계	유럽
GPU 접근성 및 AI 생태계 기반	첨단 반도체 공급망, AI 생태계 및 전문 엔지니어링 인력과의 근접성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유럽 일부 지역
정책의 예측 가능성 및 지역사회 수용성	단일 창구를 통한 계획 수립, 투자 및 에너지 인허가 절차와 지역사회의 지지	사우디아라비아, UAE, 싱가포르

전력에 이어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인 지연시간 및 연결성, 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호스팅, GPU 접근성 및 AI 생태계 성숙도는 각 시장이 어떤 유형의 워크로드를 수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대상 AI 추론, 데이터 주권 및 규제 요건이 적용되는 데이터 처리, 그리고 최첨단 모델 학습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지역사회 수용성은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종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보유한 강점을 실제 구축가능한 데이터센터 역량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반대로 시장에서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던 프로젝트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지속가능성은 본 분석에서 별도의 변수로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언급한 모든 요인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강점으로, 때로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전력망, 서늘한 기후, 신뢰할 수 있는 탈탄소화 경로를 갖춘 시장은 전력 측면에서 구조적인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모델에서는 이러한 비교우위가 전력 여건을 통해 반영됩니다. 반면 전력망, 부지 또는 인허가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로, 자본투자(Capex)의 지역별 비중은 각 지역의 경제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 자체가 어떤 지역이 앞서 나가고 있으며 어떤 지역이 뒤처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가 됩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 속도입니다.

PwC 글로벌은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전력 ▲연결성 ▲보안 및 신뢰 기반 호스팅 ▲AI 생태계 ▲정책 및 지역사회 수용성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국은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 수요 기반, 안정적인 디지털 환경, 반도체 및 AI 공급망 경쟁력은 한국의 분명한 자산입니다. 특히 GPU,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기기 등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산업 생태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력 확보와 인허가 속도는 여전히 주요 제약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계통 연계와 변전설비 확충 속도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부족하지 않지만 사업화 속도는 제한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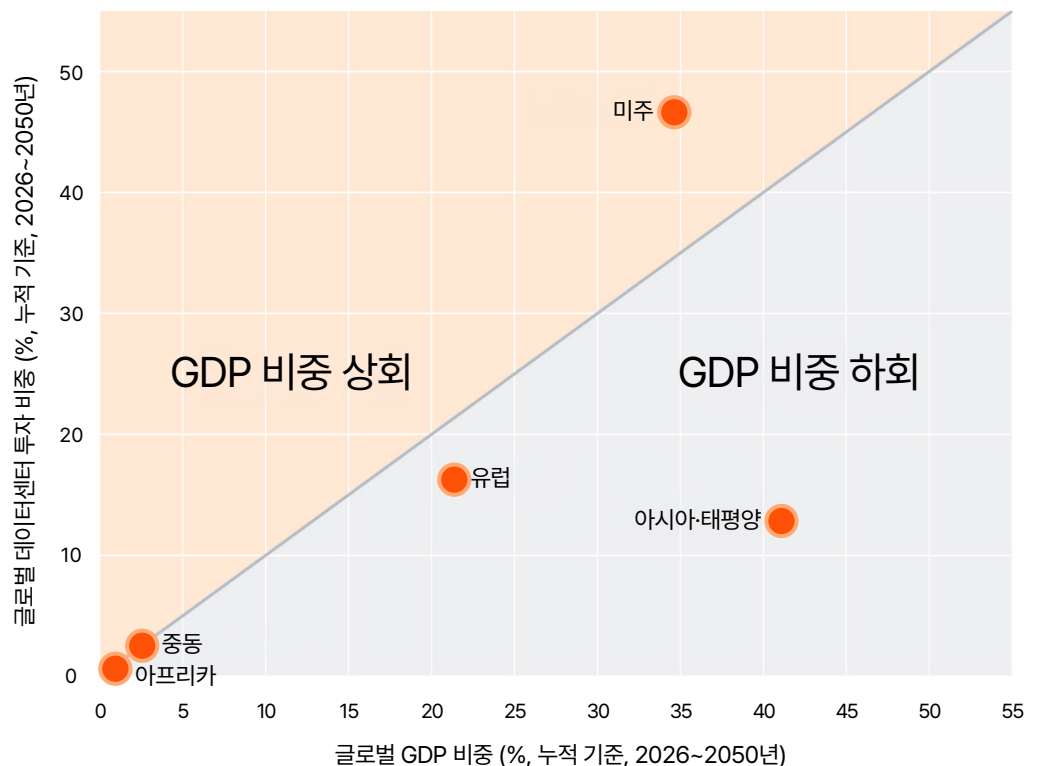
한국이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수요나 추가적인 산업 기반이 아닙니다. 이미 보유한 강점을 실제 데이터센터 용량과 AI 연산 인프라로 전환하는 실행력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전력을 공급하고 인프라를 가동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사점: 한국의 과제는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경쟁력의 현실화입니다.

AI 데이터센터 경쟁의 승패는 무엇을 더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확보한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가동 가능한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주 지역은 GDP 비중을 상회하는 수준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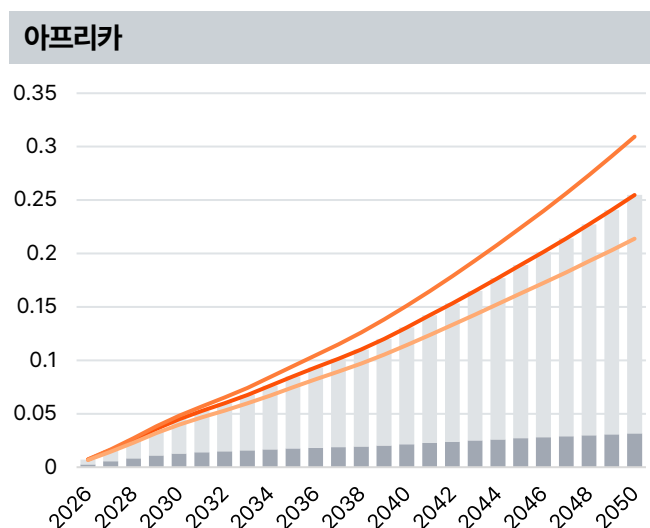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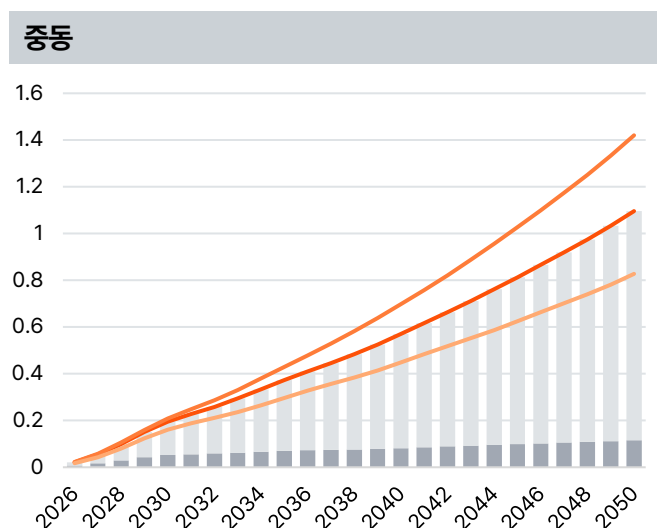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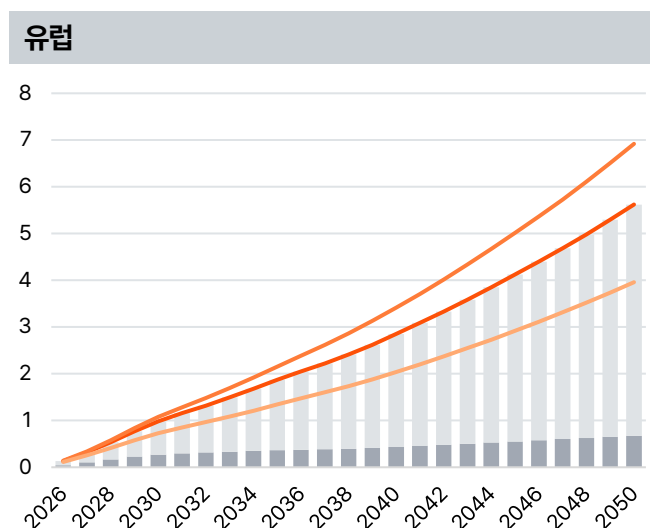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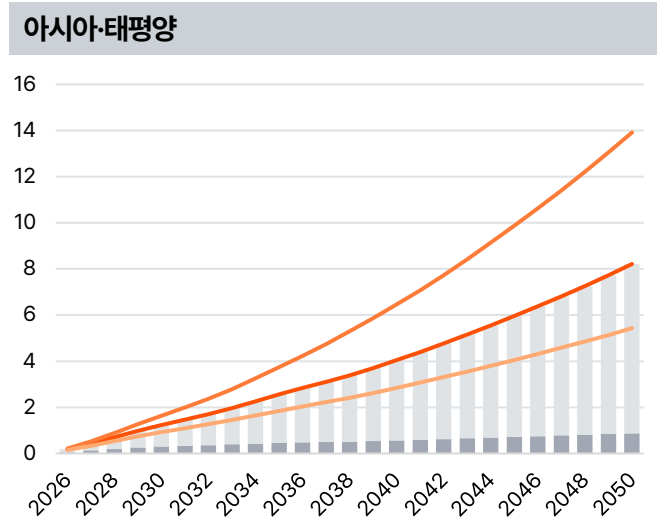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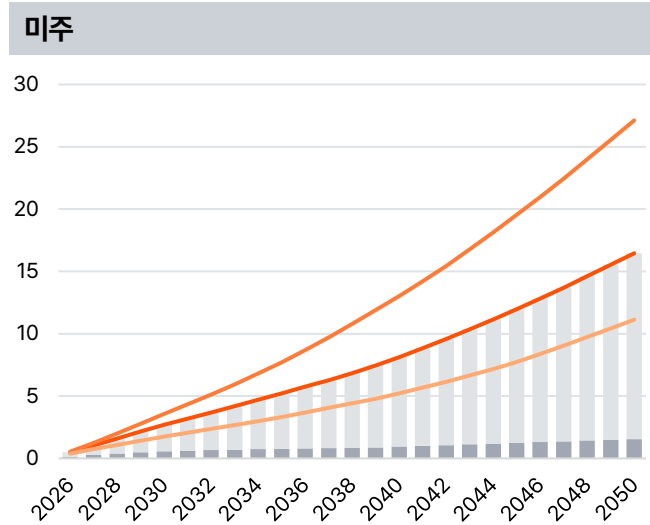
출처: PwC 『Global Data Centre Outlook 2026-50』, Oxford Economics의 예측 모형



누적 데이터센터 자본투자 (Capex)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 기준 시나리오 ■ AI 도입 가속 시나리오 ■ AI 도입 둔화 시나리오 ■ 데이터센터 건물 및 구조물 투자 ■ 데이터센터 ICT 투자

(단위: 조 미달러(USD))



참고: 모든 지출금액은 2025년 기준 미 달러(USD)로 표시되었습니다. ICT는 GPU,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의미합니다.

출처: PwC 『Global Data Centre Outlook 2026-50』, Oxford Economics의 예측 모형

미주

미주는 2050년까지 누적 자본투자(Capex) 16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미국이 15조 1,00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 세계 총액의 약 48%에 해당하며, 미주 지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AI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는 전후(戰後) 제조업 이래로 어느 주요 산업 부문에서 보다는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AI 모델 개발사, 하이퍼스케일러 및 AI 네이티브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재, 자본 및 신규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반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주(州)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이러한 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이 가속화될 경우 미주의 2050년까지 누적 자본투자는 27조 1,000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의 추가 투자 효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AI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의 투자 파이프라인이 GPU 집약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반영합니다.

미국에 이어 칠레와 캐나다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풍부한 태양광 자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안정적인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인프라의 북부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누적 자본투자(Capex)는 8조 2,000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GDP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대규모 인구,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그리고 AI가 기업 및 소비자 활동에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어 추가 수요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시장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AI 학습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와 전략적 집중도를 갖춘 몇 안 되는 시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망 대상 지역 가운데 가장 큰 변동폭을 보입니다. AI 확산이 가속화될 경우 자본투자는 69% 증가하는 반면, AI 확산이 둔화될 경우에는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역 내 국가별 전망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호주를 포함해 내수 수요 기반이 보다 견조하고 워크로드 구성이 다변화된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력을 보입니다. 반면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한 AI 워크로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유럽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본투자(Capex)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누적 자본투자는 5조 6,000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 원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상당 부분 유럽 내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력 공급 제약, 복잡한 인허가 절차, 국가별로 분절된 규제 체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토지 및 전력망 제약을 이유로 2025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한 암스테르담의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라기보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유럽은 AI 확산이 가속화되는 경우에도 자본투자(Capex) 증가율이 23%에 그쳐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입니다. 이는 기존 시나리오 자체가 이미 공급 제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EU 전반에 걸친 엄격한 데이터 주권 규제는 역내 수요의 최소 수준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망과 가까운 일부 지역은 전체 투자규모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반도체 접근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제약이 많은 서유럽의 기존 데이터센터 허브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전력망, 냉각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기후, 그리고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 40~50% 낮은 전력요금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아일랜드의 Large Energy-User Action Plan은 역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데이터센터 입지는 재생에너지 통합과 전력망 투자에 대한 이행 약속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중동 지역의 누적 자본투자(Capex)는 1조 1,000억 달러로 금액 기준으로는 크지 않지만, 그 비중은 중동 지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또한 중동은 기존 데이터센터 설치 기반이 상대적으로 작고, 에너지·자본·인허가·개발 파이프라인을 단일 창구를 통해 조율함으로써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의 데이터센터 구축은 GPU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한 워크로드를 유치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 시나리오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차질에 중동 지역의 노출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누적 자본투자(Capex)는 2,550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장 전망은 보다 긍정적입니다. 본 전망에서 아프리카는 기준 시나리오가 AI 확산 자체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아프리카는 어떤 AI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아프리카를 가장 낮은 위험도의 자본투자(Capex) 투자처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장 성숙한 데이터센터 기반을 보유하며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및 가나는 가장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케냐는 전력망의 약 95%가 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전력 기반을 갖춘 데이터센터 시장 중 하나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력은 핵심 제약요인이며, 정책은 이러한 전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이 기준 시나리오의 가정보다 훨씬 더 분절화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6. 시나리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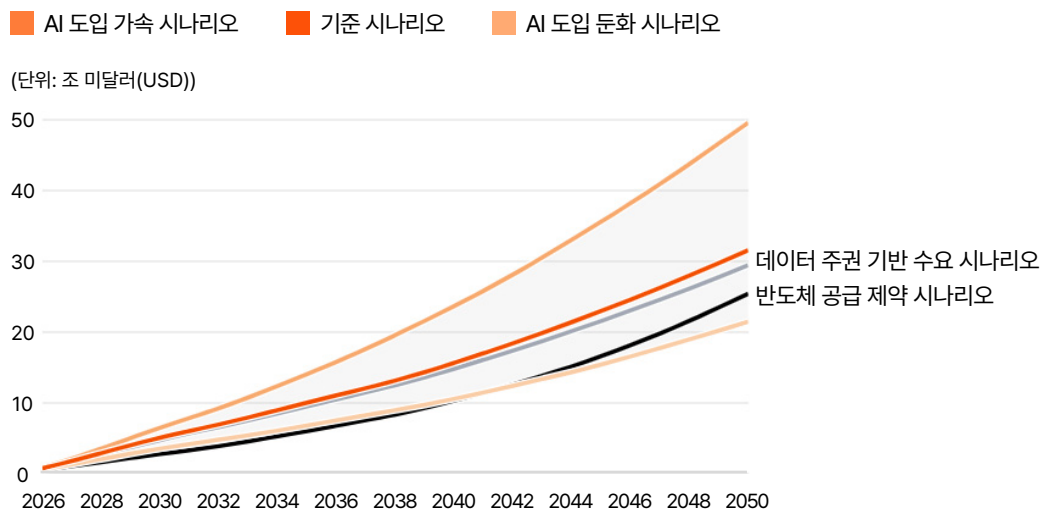
두 가지 지정학적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는 반도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워크로드는 조건이 가장 유리한 곳에서 처리되며, 데이터센터의 용량은 비교우위에 따라 구축되는 비교적 개방적인 무역 체계를 전제로 합니다. 앞서 설명한 원뿔형 수요 전망은 이러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향후 어느 정도 규모의 데이터센터 용량이 구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인은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두 가지 시나리오는 이러한 질문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첨단 반도체의 공급을 제약하는 경우를,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핵심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보다 분절화된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자본투자(Capex)를 재배분하며, 이에 따라 수혜를 받는 지역과 불이익을 받는 지역도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정학적 환경에 따라 향후 필요한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출처: PwC 『Global Data Centre Outlook 2026-50』, Oxford Economics의 예측 모형



참고: 모든 지출금액은 2025년 기준 미 달러(USD)로 표시되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제약된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시행 중인 수출통제가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수준까지 확대된 후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에 따라 첨단 GPU의 조달이 보다 광범위한 시장에서 어려워지며,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복성 규제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마찰이 확대됩니다. 반면, 공급원이 보다 다변화되어 있는 CPU 공급은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구축은 속도와 범위 모두 축소되며, 모든 지역이 영향을 받기는 하나 안정적인 반도체 접근성을 확보한 국가일수록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회복됩니다. 연간 자본투자(Capex)는 2030년까지 기준 시나리오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후, 공급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점차 회복됩니다. 2050년에는 시장이 이전의 투자 부족분을 만회하면서 연간 자본투자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8% 상회하게 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자본투자(Capex)는 약 6조 달러 감소하여, 전 세계 누적 자본투자(Capex)는 31조 6,000억 달러에서 25조 5,00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충격은 단기 파이프라인이 AI에 편중된 시장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는 GPU 집약적인 프로젝트가 반도체 공급 제약에 가장 크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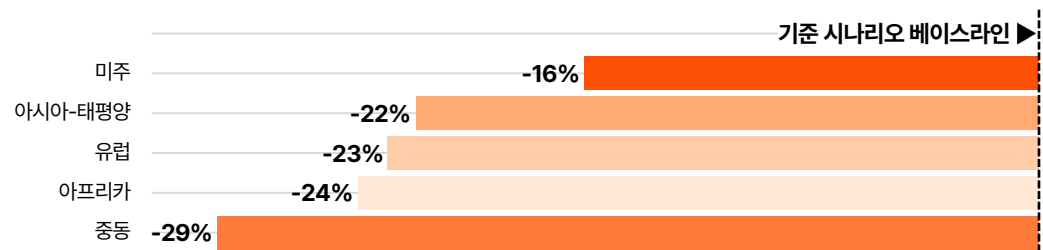
중동은 비중 기준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누적 자본투자(Capex)가 약 1조 1,000억 달러에서 0.8조 달러로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한 AI 워크로드 유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및 UAE에 집중됩니다.

중국도 동일한 이유로 국가 단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누적 자본투자(Capex)는 8조 2,000억 달러에서 6조 4,0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주 지역은 금액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투자 파이프라인이 GPU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누적 자본투자(Capex)는 16조 5,000억 달러에서 13조 8,0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반도체 공급이 제한된다면,
누적 투자 규모는 감소할
것입니다.**

출처: PwC 『Global Data Centre
Outlook 2026-50』, Oxford
Economics의 예측 모형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별 양상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일수록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은 충분히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미주 지역은 주요 권역 가운데 상대적 감소폭이 가장 작은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반도체 생태계의 깊이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 일본 및 싱가포르가 반도체 공급망 내 핵심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높은 회복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럽의 누적 자본투자(Capex)는 5조 6,000억 달러에서 4조 3,0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독일은 첨단 반도체 제조를 뒷받침하는 정밀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의 위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력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아프리카는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 기반이 제한적이고 첨단 ICT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2차적 파급효과(Second-order disruption)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누적 자본투자(Capex)는 2,550억 달러에서 1,93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이터 주권이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또 다른 구조적 변화요인을 가정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및 AI 역량에 대한 수요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정부 및 규제 산업은 공공서비스, 금융시스템, 의료, 주권AI(Sovereign AI)와 같이 국가의 회복력에 필수적인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있어 해외 인프라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이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반면 그 밖의 비핵심 워크로드는 기존과 같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자본투자(Capex) 규모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누적 자본투자(Capex)는 31조 6,000억 달러에서 29조 5,000억 달러로 감소하나, 감소폭은 6.7%에 불과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투자 감소가 아니라 투자 재배분에 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허브는 국제 수요를 처리함으로써 얻어온 이점의 일부를 상실하는 반면, 상당한 내수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데이터센터 역량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신흥시장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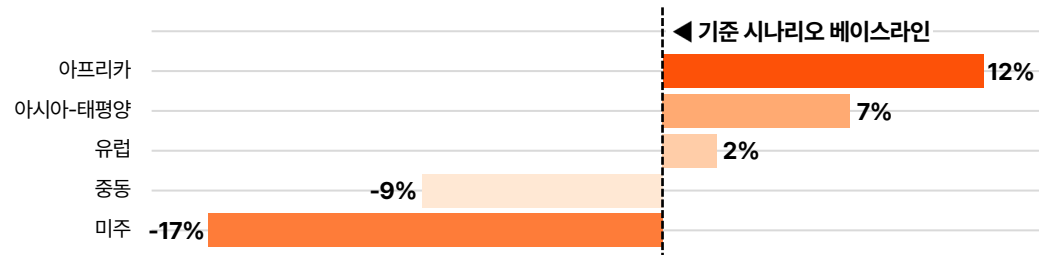
이러한 수혜는 건조한 내수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데이터센터 역량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집중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금액 기준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나타나며, 2050년 누적 자본투자(Capex)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태국은 모두 의미 있는 투자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상당한 내수 수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해당 수요의 상당 부분이 역내 주요 허브를 통해 처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일본, 호주 및 한국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더 낮은 자본투자(Capex)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이들 국가가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역내 및 국제 워크로드의 일부가 다른 시장으로 재배분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의 투자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적 자본투자(Capex)는 약 2,550억 달러에서 2,840억 달러로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자국 내 구축(Onshoring) 확대와 장기적으로는 AI 시장의 성장에 기반합니다. 이는 아프리카가 순 수혜 지역(Net winner)으로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주권 AI가 강화될수록,
수혜 지역과 피해 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출처: PwC 『Global Data Centre
Outlook 2026-50』, Oxford
Economics의 예측 모형



손실은 기준 시나리오상 다른 지역의 수요에 대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해 온 지역에 집중됩니다.

미주 지역은 금액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서 처리되던 클라우드·데이터·AI 워크로드가 각국으로 환류(Repatriation)되면서 누적 자본투자(Capex)는 16조 5,000억 달러에서 13조 7,000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미국 단독으로 약 2조 9,00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역내에서는 브라질, 칠레 및 캐나다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워크로드의 국내 처리 확대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누적 자본투자(Capex)는 1조 1,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카타르는 역내에서 가장 국제 지향적인 시장으로서, 워크로드 유치를 통해 누려왔던 이점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반면 쿠웨이트와 오만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걸프 지역 시장은 자국 내 처리(Onshoring)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단기 데이터센터 구축의 상당 부분이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한 워크로드를 유치하기보다 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대체로 기준 시나리오와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이는 EU의 엄격한 데이터 주권 규제로 인해 이미 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처리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배분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럽 전체의 재배분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유럽내 국가 간 재배분 효과는 존재합니다. 영국은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규모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튀르키예와 폴란드는 국가주권형 워크로드를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독일과 같은 기존 데이터센터 허브 국가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경 간 워크로드의 일부가 다른 시장으로 재배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투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선행지표는 향후 어떤 데이터센터 투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출처: PwC 및 Oxford Economics 분석

신호	모니터링 항목	시사점
AI 수요와 수익화	전사적 AI 도입 사례, AI 기여 매출, 추론 처리량, 생산성 개선 근거	AI 확산 속도
수요자 행동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투자(Capex) 가이드스, 임대 활동, 자체 구축, GPU 조달 현황, 네오클라우드 자금조달 여건	수요자 기반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또는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
시장 여건	공실률, 시장 흡수량, 선임대 현황, 임대료 수준, 프로젝트 착공 및 지연 현황	공급 부족 여부 및 과잉 투자 위험
반도체·장비 수급	GPU 공급 가능 여부, 서버·네트워크·냉각설비 조달기간, 중고시장 가격	반도체 공급망의 분절 여부
정책 및 주권	소버린 클라우드 규제, 수출통제, 데이터 현지화 제도, 해외투자 승인 제도	반도체 공급 흐름의 제약 여부
전력 및 전력망	전력망 연결 대기 물량, 전력 가격, 전력망 혼잡도, 전력구매계약(PPA) 조건, 변압기 리드타임	핵심 제약요인이 강화되고 있는지 또는 완화되고 있는지 여부

소버린 AI는 한국에 기회이면서도 도전입니다.

글로벌 보고서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이 강화될 경우 국가별 데이터센터 투자 지형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일본, 호주와 함께 역내 허브 기능의 일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군으로 언급됩니다. 각국이 핵심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경우, 지금까지 지역 허브가 담당해 온 일부 워크로드가 각 국가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한국에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HBM, 메모리반도체, 전력·냉각 설비 등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한, 데이터센터가 어느 국가에 건설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큼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국내 연산 인프라 경쟁력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데이터센터 개수보다 국가 AI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사점

- ① 국내 AI 연산 인프라를 확충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② HBM, 전력기기, 냉각설비 등 글로벌 AI 공급망 우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③ '국내 AIDC 육성'과 '글로벌 AI 공급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전략(Dual Strategy)이 필요합니다.

제언: 한국은 국내 인프라와 글로벌 공급망을 동시에 키워야 합니다.

글로벌 보고서가 보여주는 미래는 단순한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AI 연산 역량, 전력 확보 능력, 그리고 공급망 경쟁력을 얼마나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초대형 데이터센터 허브가 되기는 어렵지만, AI 인프라 공급망과 첨단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3대 전략 과제

삼일PwC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의 변화와 한국 시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이 집중해야 할 세 가지 전략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발표된 GW를 실제 MW로 전환해야 합니다.

향후 경쟁력은 발표된 투자 규모가 아니라 실제 가동 가능한 전력 용량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계통 연계와 변전설비 확충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력확약, 계통 접속, 가압 시점 단축을 통해 계획된 투자를 실제 공급능력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AI 데이터센터 시대의 입지 전략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금융, 게임, 공공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AI 추론(Inference) 거점으로 발전하고, 비수도권은 풍부한 전력과 대규모 부지를 활용한 AI 학습(Training) 거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 지역은 산업용 AI와 디지털트윈을 지원하는 엣지 AI(Edge AI)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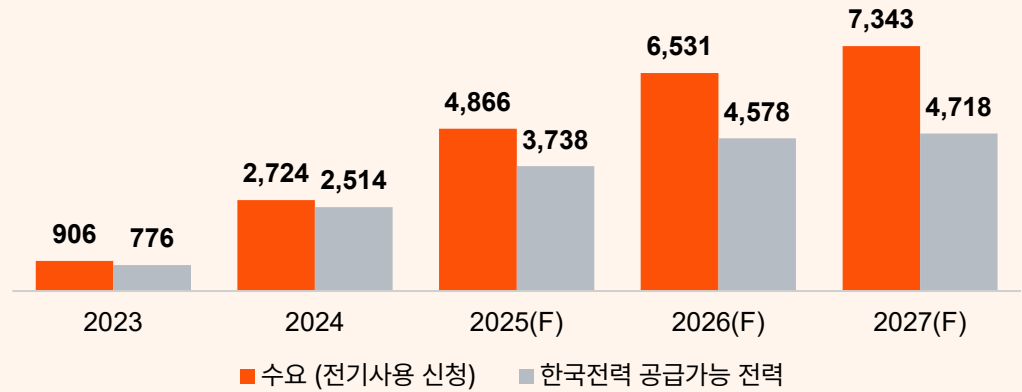
3 AI 인프라 공급망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AI 인프라 시장의 부가가치는 점차 데이터센터 건설에서 GPU, 메모리, 전력설비, 냉각장비 등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HBM과 메모리뿐 아니라 전력기기, UPS, ESS, 액체냉각, DCIM, 보안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를 국내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산업과 공급망 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의 과제는 데이터센터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 시대의 핵심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하는가에 있습니다. 전력, 연산 인프라, 공급망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AI 시대의 새로운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데이터센터 개수보다 AI 인프라 생태계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전기사용 신청)와
한국전력 공급가능 전력
(단위: M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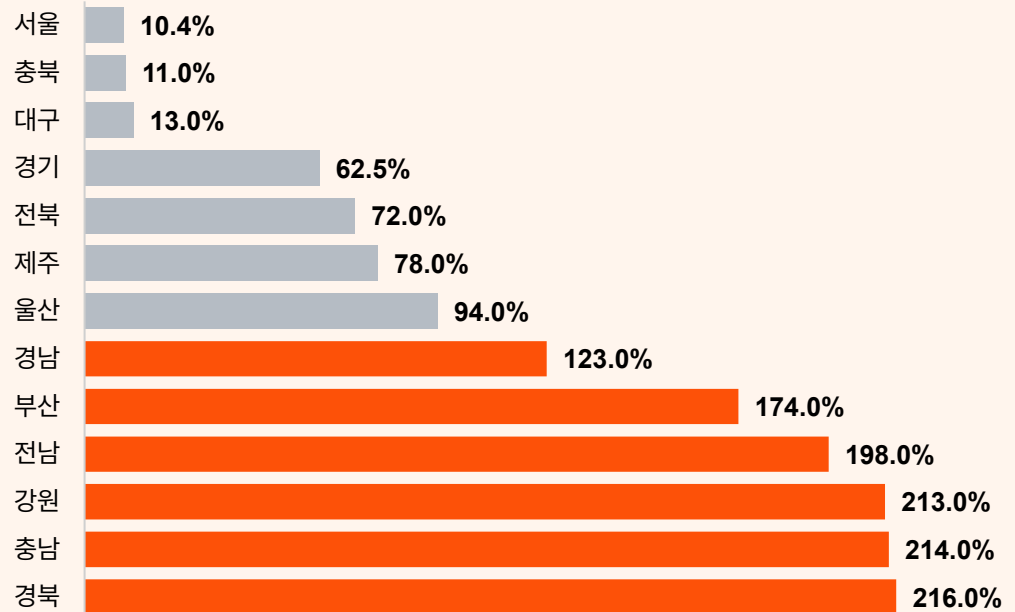
출처: 삼일PwC 경영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주: 한국전력에 제출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 대비 공급 가능한 전력량이며,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입니다.

**한국 지역별 전력자립률
(2024년, 지역 생산량 ÷
지역 소비량, %)**

출처: 삼일PwC 경영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시사점

투자 사이클에 대한 대응 방향

이번 분석은 규모가 크고 구조적이며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투자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사이클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으며,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재편에 취약합니다. 데이터센터 용량을 구축하고 자본을 투자하며 시장 환경을 형성하는 주체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입니다. 아래 권고사항은 앞서 살펴본 원뿔형 수요 전망과 두 가지 지정학적 시나리오 모두에 적용됩니다.

투자자 (For investors)

- 데이터센터를 복합 자산(hybrid asset)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부동산, 유틸리티 인프라, 반도체 관련 위험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서로 다른 투자 기간과 리스크 특성을 갖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과소평가되는 리스크는 반도체 부문의 기술 진부화(Obsolescence) 및 잔존가치(Residual value) 리스크입니다.
- 자산 구조를 넘어 실제 리스크가 존재하는 지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본, 개발, 임대 및 거래상대방(Counterparty) 리스크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 구성 역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네오클라우드 사업자, 국가 주도 투자기구(Sovereign vehicles), 규제 산업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각각은 시나리오별로 수요의 지속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데이터센터를 단일한 투자 노출로 간주할 경우 이러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기존 허브에 대한 집중을 완화하고 투자를 분산해야 합니다. 대형 허브는 AI 확산이 가속화될 경우 가장 큰 상승 여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 둔화, 반도체 접근성 제약, 그리고 데이터 주권 강화에 따른 투자 재배분의 영향에도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영사 (For operators)

- 본 분석의 두 가지 지정학적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경쟁 구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반도체 접근성, 하이퍼스케일러의 규모, AI 학습 워크로드를 둘러싼 글로벌 허브 간 경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권 기반 AI 추론과 기초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둘러싼 국내 및 지역 차원의 경쟁입니다. 두 경쟁은 성공 요인, 수요처(Off-taker) 및 설계 요건이 크게 다르며, 하나의 경쟁에 맞춰 수립된 전략은 다른 경쟁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 전력 확보 속도를 경쟁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력은 본 분석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핵심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전체 수요가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보다 빠르게 전력 용량(MW)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사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데이터센터 용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유연성(Optionality)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단계적인 전력망 연계, 모듈형 데이터센터 용량, 그리고 다양한 하드웨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 가능성 자체가 시나리오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수단이 됩니다. AI 확산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휴 인프라 용량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술 진부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수요처인 하이퍼스케일러, 국가 주도 투자기구(Sovereign vehicles), 규제 대상 기업·기관은 성장 둔화 및 데이터 주권 강화 시나리오에서도 수요의 지속성이 가장 높은 주체들입니다. 이들 수요처를 적절히 평가하고 계약을 구조화하는 것이 자산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헤지 수단입니다.

정책결정자 (For policymakers)

-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간주해야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국가 및 지역은 에너지, 자본, 인허가 및 개발 파이프라인을 민간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두기보다 단일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조율합니다. 중동의 정책 공조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세제 혜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지 지원 또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선별적 지원 등을 통해 경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의 조합입니다. 데이터센터 개발을 더 빠르고, 더 예측 가능하며,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국가와 지역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기 조달이 필요한 전력 및 전력망 설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송전설비, 변전소 및 변압기는 이제 수년에 걸친 조달기간이 소요되며, 어떤 프로젝트가 언제 착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선제 조달(Pre-procurement)은 이러한 병목을 완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정 관리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수요 가시성에 맞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이프라인 없이 선제 조달이 이루어질 경우, 그 자체로 활용되지 못하는 전력망 투자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초기 단계부터 저탄소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계획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시장은 재생에너지와 안정적인 저탄소 전력 공급능력이 뒤쳐지지 않고 데이터센터 입지와 함께 확장되는 시장입니다. 반대로 데이터센터 구축 이후 이를 뒤따르는 형태의 전력 확충은 경쟁우위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북유럽, 칠레 및 캐나다는 이러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들 국가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청정 전력을 기반으로, 전력이 제약요인이 아닌 비교우위로 작용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1조 6,000억 달러짜리 질문의 핵심은 자본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자본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느냐도 아닙니다. 수요 역시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 어떤 운영사, 그리고 어떤 국가나 지역이 이러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건물보다 반도체 교체 주기에 주목하는 투자자,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시장과 주권 기반 지역 시장 중 목표 시장을 명확히 설정한 운영사, 그리고 전력을 오늘날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정부가 결국 승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 과거의 우위에 안주하는 허브, 여전히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머물러 있는 지역,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마치 물류창고처럼 평가하는 자본 배분자는 AI 인프라 구축이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상승 국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50년 전 세계 연산 역량의 분포는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재편될 것입니다. 이는 2026년의 모습과는 크게 다를 것이며, 그 차이는 수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입니다.

8. 방법론

PwC는 본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Oxford Economics에 데이터센터 자본투자(Capex) 전망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전망은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5개 권역에 걸쳐 46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전 세계 경제활동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본투자(Capex)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및 구조물(Buildings and structures)로, 전력 및 냉각 설비를 포함하여 데이터센터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ICT 장비(ICT equipment)로,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되는 서버, GPU, CPU,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비를 의미합니다.

ICT 장비는 4~6년마다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모든 수치는 2025년 환율 기준의 실질 미국 달러(Real US dollars)로 표시하였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세 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쳐 구축되었습니다.

첫째, 수요는 경제활동과 디지털 소비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역별 웹-데이터 서비스 수요는 로지스틱 수용곡선(Logistic adoption curve)을 활용하여 모형화하였으며, 각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 전망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IT 부하(MW 기준)으로 측정한 데이터센터 IT용량에 대한 글로벌 전망을 도출하였으며(국제에너지기구(IEA), Uptime Institute 자료 활용), OECD 및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기반한 장기 설비가동률(Capacity utilisation) 가정을 적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공급은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을 식별하는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모형을 통해 국가 및 지역별로 배분하였습니다. 해당 모형에는 전력 가격, 송배전 손실률,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지, 반도체 교역, ICT 서비스 수출, 사이버보안 성숙도 등을 포함한 11개 변수가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국가 및 지역별 비교우위와 단기 파이프라인 분석을 결합하여 2030년까지의 단기 데이터센터 용량 전망을 도출한 뒤, 2050년까지의 장기 분포 전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투자(Capex)는 Turner & Townsend의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 지수 2025-2026(Data centre construction cost index 2025-2026)' 및 ICT 장비 비용 연구를 앞서 도출한 용량 전망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용량은 연산 성능의 단위가 아니라 IT 부하(MW)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 향상, 전력당 연산능력 개선, 랙(Rack) 밀도 향상과 같은 기술 발전은 MW당 자본투자(Capex)가 감소하는 형태가 아니라 동일한 MW가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역량의 증가로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상쇄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반도체는 동일한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서버 수를 줄이는 반면, 연산 비용의 실질적 하락은 새로운 활용 사례를 창출하고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경제성장과 디지털 서비스 확산은 이러한 두 가지 효과를 내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IT 부하 수요를 보정하는 핵심 변수로 활용됩니다. ICT 장비 내 GPU 비중은 AI 워크로드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MW당 비용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가격에는 어느 방향으로도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본 전망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연산 구조(Architectures), 특히 양자컴퓨팅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자컴퓨팅은 전망 기간 동안에도 상업적 성숙도가 초기 단계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자컴퓨팅의 성능과 비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기존 데이터센터가 처리하는 워크로드 구성 역시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은 모델링 범위 밖의 요소로 간주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뿔형 수요 전망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AI 도입 속도가 더 빠르거나 더 느린 경우를 가정한 두 가지 추가 시나리오를 반영합니다. AI 도입 가속 시나리오는 Microsoft의 「Global AI Adoption in 2025: A Widening Digital Divide」 보고서를 근거로, 모든 국가 및 지역의 AI 도입 속도가 현재 세계 선두인 아랍에미리트(UAE)의 과거 성장률을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반면 AI 도입 둔화 시나리오는 AI 도입이 현재의 구축 파이프라인이 전제하는 수준보다 미진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운영사들은 우선 GPU 조달 규모를 축소하고, 이후 초과 공급이 가시화됨에 따라 건설 투자 역시 축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지정학적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복성 규제의 영향을 반영하며, 그 영향은 GPU 집약적 시장에 집중되고 회복은 공급망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수요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가정한 핵심 워크로드로, CPU 중심의 클라우드 및 스토리지, 공공서비스와 금융시스템을 위한 AI 추론, 그리고 소규모 국가 주도 AI 학습이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및 지역 허브를 통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비핵심 워크로드입니다.

본 전망은 개별 시나리오에 확률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AI 도입, 공급망 여건 및 정책 환경에 대한 현재의 가정을 바탕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반영한 것이며, 대안 시나리오는 위험의 경중을 서열화 한 것이 아니라 기본 경로에서 벗어나는 일관성 있는 전개를 설명한 것입니다.

9. 참고사항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을 과거 인프라 투자 사이클과 비교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철도 건설, 그리고 초기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역사적 투자 규모를 2025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철도 건설 누적 투자 규모(1840~1900년)는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의 역사적 데이터와 영국 국립문서보관소(UK National Archives)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가치 기준 약 7,200억 달러로 추산하였습니다. 초기 인터넷 인프라 구축의 누적 투자 규모(1996~2001년)는 주요 유선통신, 무선통신 및 케이블 사업자의 자본투자(Capex)에 관한 US Telecom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연구를 바탕으로 2025년 가치 기준 약 3조 2,900억 달러로 산정하였습니다. 물가 조정은 데이터제공기관인 MeasuringWorth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Business Contacts

삼일PwC AIDC 전담팀

Assurance

강 찬 휘 Partner
chan-hwi.kang@pwc.com

정 기 욱 Partner
ki-wook.jung@pwc.com

Tax

박 기 운 Partner
ki-un.park@pwc.com

조 준 수 Partner
jun-soo.cho@pwc.com

Deals

서 용 태 Partner
yong-tae.seo@pwc.com

박 성 진 Partner
sung-jin.park@pwc.com

최 성 흠 Partner
seong-heum.choi@pwc.com

황 성 주 Managing Director
jenson.hwang@pwc.com

Consulting

유 원 석 Partner
won-seok.yoo@pwc.com

조 운 희 Partner
woonhee.cho@pwc.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09A-RP-113